

지역재생을 위한 'D.I.Y. Spirit' 개념과 실행방식 연구 - 영국 'Assemble' 작업을 중심으로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D.I.Y. Spirit' for Regional Regeneration - Focusing on Works of 'Assemble' in the UK

Soon-Sub Choi
School of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약 지역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 개념과 방식은 현재까지도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한정하여 제도 규정 및 사업체계를 구축한 한계가 있다. 사업 후 자생력 실현이라는 공통 목표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운영자와 사용자가 지역에 필요한 공간과 장소를 직접 만드는 D.I.Y. 과정을 수반한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영국 어셈블의 D.I.Y. Spirit의 실천 및 이입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Y. Spirit 구축 및 실행방식을 분석·도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 결과 어셈블은 협력 작업장인 워크숍을 구축 및 운영한다. 공간구성은 공유 작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협업 가능한 창작과 제작 분야 주체들을 모은다. 둘째,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확장한다. 참여자들이 수집 및 기부한 재활용 재료들을 주민이 참여한 시공이 용이하도록 가공할 방법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D.I.Y. 작업과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결국, 한국형 D.I.Y. Spirit 적용 재생사업을 서류 심사보다 D.I.Y. 실행 모니터링 평가와 D.I.Y. 지원조직 참여, 수익 지역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유도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구조의 사업 체계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ncept and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public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s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business systems because they mainly focu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common goal of realizing self-sustainability after the end of a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lementation factors and process of the "D.I.Y. spirit" in "Assemble" works, which involve the local regeneration project involving a D.I.Y. process where operators and users create places and spaces for a local area for themsel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educe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D.I.Y. spirit. Research has shown that Assemble builds and operates workshop spaces for collaboration. The space composition is organized around shared workplaces and brings together creative and productive people. It also extends the scope of user engagement through the up-cycling process. It helps participants to collect recycled and donated materials and to devise a way of material processing for easier construction involving residents. Finally, it explores a region-based business model in which D.I.Y. programs and activities can persist.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for a "Korean regeneration project that applies the D.I.Y. spirit, which focuses on a system that fosters encouraging D.I.Y. activities, monitoring, evaluation, participation in D.I.Y.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fitable regional business models rather than document screening

Keywords : Assemble, D.I.Y., Workshop, Participation, Continuity, Regeneration Project, Up-Cycling, Self-Sustaining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c1b5017259).

*Corresponding Author : Soon-Sub, Choi(Korea National Univ. of Transportation)

email: sschoi@ut.ac.kr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May 21,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도시재생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 청년몰사업 등 농림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지역 재생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참여를 전제로 진행한다. 주로 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으로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관리주체로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조직하여 사업 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마중물사업 즉, '단발성' 공공지원 후 자생적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후 정체 및 방지되는 활동과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지원 및 사후관리 부재에서 찾고 있지만[1], 근본적으로 공공재원 유치에 집중한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자생적 '지역재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생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생적 역량을 이입하기 위한 주민참여 개념과 방식은 2015년 터너상(Turner Prize)을 받은 영국 어셈블(Assemble)의 활동과 작업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셈블은 2010년 영국의 폐-주유소를 임시 영화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18명으로 구성된 건축, 예술, 디자인 등 분야 그룹이다. 주민과 함께 직접 장소와 공간을 구축·운영하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지역재생의 촉발자(trigger) 역할을 한다. 이들은 '풍부한 자원과 D.I.Y.(Resourceful and D.I.Y.)'를 내세우며 최소 재원으로 협력적 만들기(making) 작업을 진행하여 'D.I.Y. Spirit'을 참여자에게 이입시킨다. 활동과 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자생력 강화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생적 지역재생을 목표한 공공사업에서 누락한 부분을 찾고 대안을 설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즉, 주민의 참여방식을 의견교환 기회 확대와 조직화에만 두는 것이 아닌, 실제 '함께 만들기' 과정을 통해 자생적 정신을 키우는 방식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Y. 연계 지역재생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자생적 D.I.Y. Spirit의 구축 및 실행방식을 어셈블 작업 분석 중심으로 도출한다. 이는 한국형 D.I.Y. Spirit 적용 재생사업 체계 제안의 선행 연구이다.

1.2 연구의 방법

지역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연구는 2008년부터 수법

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8년 손동옥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 주민의견 수렴 보다 계획단계에서 공공 및 민간개발자의 갈등을 관리 및 조정하는 통합추진 조직을 주장하였다[2]. 또한 박현옥은 '일본의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의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분석[3]하였으며, 김우도 외 2인(2008)은 참여를 위한 소셜네트워크 기반 설계 도구를 제안하였다[4].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참여 방식을 검증·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2017년 이나영 외 1인은 구로구 가리봉동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진행 현황을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 참여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5]. 이유리 외 1인(2018)은 주민유형에 따라 주민참여도와 활동의 이해관계가 상이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 참여방식의 확대방안을 제안한 사례는 김용국 외 1인의 플랫폼 기반 크라우드소싱 활용 통합시스템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다[6].

이와 같이 지역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타 공공사업과 차별된 핵심과정이나 자발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결과가 도출되어 대안들이 제안되었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플랫폼기술 도입까지 제안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적극적' 참여방식을 의사결정 참여단계에만 국한한[3]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적극적' 주민참여를 '능동적' 참여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D.I.Y. Spirit'의 구축 및 실행방식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2장은 도시재생법과 각종 재생사업 지침 분석을 통해 제도·사업 측면의 가치가 사업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분석한 후, 주민참여 D.I.Y.의 과정이 필요함을 도출한다. 3장은 D.I.Y.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후, 'D.I.Y. Spirit' 개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어셈블 작업 분석을 통해 'D.I.Y. Spirit' 구축 및 실행방식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한국형 'D.I.Y. Spirit' 적용 재생사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3장과 4장 사례는 Table 1.과 같이 현지답사와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철거된 사례는 이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생적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사업의 주민참여 방식에서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실행단계에서 능동적 참여방식을 제안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한국형 'D.I.Y. Spirit' 적용 재생사업 실행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Table 1. Interviewee and Main Question in the Field Research of Case Study(2018.1/2019.2)

Project Title	Main Question	Interviewee
Grand Train Project (France)	-Visit and participatory experience -Effec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User(Citizen)
Community Garden(France)		User(Citizen)
Cineroleum (England)		User(Citizen)
Granby Workshop (England)	-Process of space construction -Space management and program -Profit structure -Co-operation ways to run program	Manager
Winter Garden(England)		Employee
La Halle Papin(France)		Manager
Sugar House(England)		Manager
		Manager

2. 지역재생 사업의 주요 가치와 한계

2.1 제도 측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노후 지역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정비 사업이었다[4]. 그러나 기존 사업이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으로 지역특성의 반영이 미흡하게 진행되어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도심의 보존·관리·재생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7] 시작되었다. 201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도시재생 비전을 크게 5가지로 제안[8]하였는데, 4번인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과 5번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을 강화한, 참여하는 주민 공동체 구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법에 주민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Table 2.에서 보듯이 제2조 6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공공과 지역주민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정의하여 계획과정 참여를 명시한다. 또한 7항의 ‘도시재생’의 항목 중 세 번째가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9항에서는 지

Table 2. Residents Participation's Definition in Urban Regeneration Act

Category	Roles	Claus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activ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2.7
Activation Plan	-Resident participatory planning	2.6
Community Enterprise	-Project implementing group	2.9 26. 2
Public hearing	-Collecting opinion	15
Resident proposal	-Project proposal	18

역주민 또는 단체의 운영조직인 마을기업을 정의하고 제 26조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명시한다. 제11조 중간 지원조직 역할의 두 번째도 주민의 의견조정이다. 주민 참여의 권한은 특히, 15조의 공청회와 제18조의 주민 제안에서 정의되는데, 의견수렴은 물론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활성화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주민참여는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민협의체와 사업협의회로 규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제3조와 제21조에서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자발적 협력조직으로 주민협의체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주민조직과 행정,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한 조직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법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민협의체와 사업협의회를 공식적 참여기구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도적 정의에서 주민참여는 주로 의견수렴과 사업 제안, 의사결정 참여에만 국한된다. 물론 마을기업으로 사업 실행·운영 참여가 가능하나, 인건비 등 지원이 끊긴 후 미·운영 시설이 증가 중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9.5% 매출이 감소한 대전시 사례[9]에서 보듯이 자생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2.2 사업 측면

국토교통부의 2014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81개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어지는 등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사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타 부처에서도 2010년 중반부터 주민참여가 주요 평가기준인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생활 인

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데 70-100억 원의 국비를 3-5년여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2015년에서 2016년까지 32개소가 선정되어 2019년까지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Fig. 1과 같이 예비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이나 시행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시설계획과 주민참여 운영방안이 동시에 제안되어야 한다 [10].

이런 과정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인 농어촌공사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다. 지역의 법인, 단체 등 활동조직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주도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청년몰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업 당 10-30억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상인 상권 조성 사업으로 시장 인프라와 상인 역량이 주요 선정기준이다. 상인회 중심의 제안서 작성 후 지방중기청에 접수한다[11].

이러한 주민참여 제안사업들의 목적에서는 명확히 공통가치인 '자생'을 언급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자생조직'과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표로 명시하며[12], 청년몰사업도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 지원'이 목표로 설정된다.

한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추진하는 세부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과업 목적을 '주민의 참여 의식 제고'와 '지역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로 정[13]한 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생'의 목적성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생'을 총 121번이나 언급[14]하면서 주민 협의체 참여와 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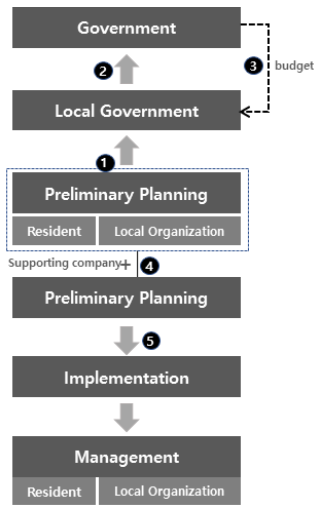


Fig. 1. The Typical Process of Public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획을 강조한다. 특히, 고려사항으로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이 명시되고 주민공모사업은 자생적 마을 조직 성장에 기여해야 함을 언급한다. 또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시 준공 후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15].

이와 같이 주민참여가 주된 계획과정이며 평가기준인 재생사업의 경우, '자생'과 '자립', '지속가능성' 등이 주된 목표의 가치로 제시된다. 즉, 사업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자생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2.3 주민참여 방식의 설정 한계

지역재생 사업은 공통적으로 마중물사업이다. 3년에서 5년을 기한으로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시설, 장소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자생적 활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16].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듯이 폐광촌, 청년몰, 농촌중심지 관련 사업 완료 후 방치된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17]. 또한 재생사업으로 지자체 거점시설이 늘어나면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18]. 재생사업 대상지들이 저출산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자생력이 부족한 사업 결과가 추후 역으로 지역쇠퇴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생'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재생사업의 문제를 사후관리 미비로 진단하기도 한다 [19]. 그러나 근본 원인은 사업 의도와 달리 주민참여의 자발성의 부족에 있다. 예비계획서와 사업제안서는 Fig. 2와 같이 입찰·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주도하여 세부사업을 제안한 후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사업들이 제안된다[20].

물론 이러한 참여방식도 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 과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21]. 또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도 주민참여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홍보,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의한다. 이는 아직까지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 개념이 Frederick Wulz가 1986년에 정의한 '사용자 자치결정' 단계[22]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후 운영조직 부재와 지원 이후 마을기업의 매출 감소와 적자로 인한 문제 등을 볼 때 결국,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한정된 주민참여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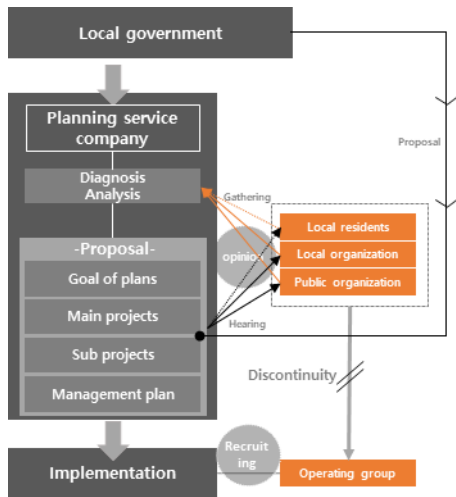


Fig. 2. The Planning Process and Limits of Regional Generation Project in the Field

2.4 소결

이와 같이 제도와 사업 측면에서 지역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의 근거는 ‘자생’과 연결된다.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속적 성과를 내야하는 재생사업이 단발성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실행 과정에서 자생의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텍티컬, 팝업, 게릴라 어바니즘(Tactical, Pop-up, Guerilla Urbanism)은 실천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미에서 사회실험 성격으로 시작되었다[24]. 기존 의사결정 참여방식으로는 자발성이 결여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D.I.Y.(Do It Yourself)’ 과정을 수반한다. 이유는 임시점유 조건에서 협력적 구축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communitiy)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25]. 즉, 지역의 주민의식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3장에서 D.I.Y.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참여 유형과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3. D.I.Y.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유형 및 특성

3.1 기획자 주도형 D.I.Y.

지역문제 해결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회실험[14] 프로젝트는 주로 지역 활동가에 의해 수행된다. 예로서 공공 참여 예술·디자인 행동가 조직인 레바 그룹(Rebar group)

이 2005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파크 데이즈(Park(ing) Days)가 있다. 2시간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여 Fig. 3.과 같이 잔디 위 휴식공간을 설치하였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을 비판하고 보행자 공간의 확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26].



Fig. 3. The First Park(ing) Days Project (<https://streetswithoutcars.wordpress.com/tag/rebar-group>)

프랑스의 그라운드 컨트롤(Ground Control)도 방치된 도심 내 유휴 공간에서 실험적 이벤트를 실행하는 조직인 라 룬 루세(La Lunne Rousse)의 Fig. 4.와 같이 2014년 팝업 임시 바(bar)의 운영에서 시작되었다. 2025년 주택과 오피스, 상가 복합지구로 개발하기 전 방치된 SNCF(French National Railway Company) 철도 창고에서 철도협회 임시승인으로 2016년 정식 오픈하게 된다[27]. 특히 폐-열차와 창고를 활용한 영화관과 도서관, 박물관, 농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가구를 직접 제작·설치하였다.



Fig. 4. The Process of Change in Ground Control, 2014-2018 (<http://www.lalunerousse.com/>)

두 사례는 기획과 D.I.Y.가 동일한 조직에서 수행한 임시점유 프로젝트이다. 단, 파크 데이즈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라운드 컨트롤은 유휴공간의 활용 대안인 프로그램의 공급이 중요하였다. 즉, 지역에 새로운 문화소비 프로그램과 장소를 빠르게 구축하되 변경과 추후 철거도 용이해야 했다. 따라서 D.I.Y.는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과정이었다.

3.2 협업 파생형 D.I.Y.

D.I.Y.는 공공의 노동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구축 과정을 통해 장소기반의 협력 활동들이 출몰하기도 한다[28]. 이는 특히,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Fig. 5. D.I.Y. Process of La Halle Papin in Paris (<http://www.lahallepapin.com>)

프랑스의 라 할레 파핀(La Halle Papin)은 창업자들이 D.I.Y.를 통해 직접 공간을 만들면서 협업관계를 형성한 사례이다. 방치된 타이어 및 기계공구 제조공장 사용권을 수크마쎈(Soukmaschinen)이 위탁받아 1㎡당 약 6유로의 임대료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창업자는 지역 기반의 예술가, 공예가, 건축가, 신생기업 창업자들이며 Fig. 5와 같이 D.I.Y.로 자신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29]. 물론, 임시사용과 자본이 부족한 신생 창업의 조건에서 D.I.Y.가 이루어졌으나, 수크마쎈이 의도한 것은 구축의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협업관계 도출하는 것이었다.



Fig. 6. Weekend Event in La Halle Papin (<http://www.lahallepapin.com>)

결국, Fig. 6과 같이 주말마다 개최되는 바비큐 및 펍, 파티,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이어진다. 주민에게 개방된 이벤트의 장소인 마당에서 수크마쎈과 창업자들이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임대료로 충당하면서도 주민에게는 정기적 지역행사 제공이 지속될 동기가 된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 파생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5년에 폐쇄된 병원(Saint-Vincent-de-Paul Hospital)이 임시 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변환된 그란드 보이쥔(Les Grand Voision)에서도 이런 파생적 지역 프로그램 생산과정과 관계를 볼 수 있다. 2017년의 생태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전 2년 동안 버려진 병원 사용권을 얻는 비영리단체인 오로르(Aurore)는 난민에게 임시거처 제공하고 플라투 어바인(Plateau Urbain)은 유희공간 기획을, 예스위캠프(Yes We Camp)는 건축 관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된 참여자는 Table 3과 같이

난민, 코디네이터, 스타트업·협회·예술가·공예 분야 운영자와 외부 주체자였다. 여기서 코디네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기획하며, ㎡ 당 평균 약 250 유로로 임차한 운영자들은 작업 및 상업공간을 매개한 실행자 역할을 한다. 또한 외부참여자들은 문화, 예술과 교육행사를 주체한다[30]. Fig. 7과 같이 D.I.Y. 협력으로 공간과 프로그램 장소들이 설치 및 해체되었다. 호스텔, 레스토랑, 바, 빵집, 영화관, 캠핑장, 커뮤니티 가든, 부퍼크, 코워킹스페이스 및 다양한 워크샵이 열리는 아프리예를 중심으로 내부 및 외부참여자의 기획행사가 열리며 운영자들과 협업하는 구조이다.

Table 3. Participants and Roles of Les Grand Voision

Category	Roles
Inhabitants	-Participations through work, care and sociability
Coordinators	-Promoting social diversity -Encourage the creation of communities -Proposing new forms of resilience in cities
Occupants	-Running workshops-offices: associations, artists, craftsmen, small businesses, self-entrepreneurs. -Holding event program
Speakers and volunteers	-Offering more than 300 free cultural, educational and arts events to 600,000 visitors a year



Fig. 7. D.I.Y. Process and Event Space of Grand Voision (<https://lesgrandsvoisins.org>)

이와 같이 각 주체들의 협업 기획의 시작은 D.I.Y. 과정이다. 함께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동기가 발생한다. 파생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 및 실행될 수 있다.

3.3 사용자 참여형 D.I.Y.

직접 D.I.Y. 과정으로 주민이 이용할 공공공간을 구축하여 능동적 참여 역량과 의식이 강화[25]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마을의 방치된 곳을 공유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단체인 라 구뜨 베르트(La Goutte Verte)는 라구아트(Rue Laghouat) 거리의 첫 번째 정

원을 포함한 4개의 정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시에서 사용권을 얻은 주민들은 Fig. 8과 같이 공장 팔레트와 폐자재를 D.I.Y.를 통해 벤치와 탁자, 화분을 만들었다. 이런 만들기 행위는 자체로 지역 이벤트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과정이었다. 또한 조성된 공간에서 음악 산책, 종자교환, 토마토 잼 만들기, 바비큐 행사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31]이 자체적으로 기획 및 시행되었다.



Fig. 8. Community Garden and D.I.Y. Garage of La Goutte Verte in Paris

2007년 포틀랜드에서 비-인가 자원봉사 조직 디페이브(DEPAVE)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 인공바닥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Fig. 9와 같이 바닥을 뜯어 내 정원과 공원 등 녹지·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7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약, 94,100 sq. ft.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였다[32].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이벤트이자 지역문제 인식 강화와 해결의 과정이었다.



Fig. 9. Depave Project in Astor School (<https://depave.org>)

이와 같이, 사용자 참여형의 D.I.Y.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과 방식을 인지시키는 프로그램이자 대안의 실행과정이다[25]. 또한 조성 공간들은 다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거점 장소가 된다.

3.4 소결

지역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D.I.Y.는 참여 프로그램이자 구축 과정이 된다. 물론 참여범위는 Table 4와 같이 차이를 보인다.

Table 4. The Participation Types of D.I.Y. Projects for Regional Regeneration

Type	Main objectives	Value
Planner-led	-Spreading meanings -Providing space/program	Flexibility
Collaboration-derived	-Providing human networks -Inducing collaborative program	Derivative Continuity
User-Participated	-Strengthening citizenship -Building Community -Acting for voluntary participation	Activity Spontaneity Continuity

우선, 기획자 주도형은 조직 내에서 D.I.Y.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장소를 공급하고 용이한 변형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된다. 협업 파생형 D.I.Y.는 기획자 주도형에서 확장한, 운영자들이 협력하여 장소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추후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동기가 된다. 반면 주민 참여형 D.I.Y.는 촉진 조직(Facilitator group)을 중심으로 최대의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여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실행력을 갖춘 태도와 정신을 이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위, 'D.I.Y. Spirit'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D.I.Y Spirit'은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시민 주도적 태도를 의미한다. 지역을 활기차고, 진화하면서 흥미로운 장소를 만드는 시민 각자의 기업가 정신으로도 정의된다[33]. 특히, 영국의 어셈블은 'Resourcefulness and D.I.Y. Spirit'을 작업의 주요 가치로 설정[34]하여 위의 세 방식을 지역과 예산, 프로그램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4장은 'D.I.Y Spirit'의 구축 및 실행방식을 어셈블의 주요 작업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4. 'D.I.Y. Spirit' 구축 및 실행방식

-Assemble 작업을 중심으로

4.1 협력적 생산을 위한 워크숍

어셈블은, 개방되고 자기주도형 교육이 추구되며,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지향한다[35]. 이런 개념은 워크숍의 구축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 예는 리버플 그랜비 워크숍(Granby Workshop)이다. 그랜비 퍼 스트리트(Granby Four Streets) 지역은 주변 재개발로 방치되고 파손된 빈집이 많았다. 2011년 설립된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이 신탁 받은 10채의 집을 어셈블에게 설계와 시공을 의뢰하였다. 이들은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랜비 워크숍을 지역주민과 폐자재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곳에서 Fig. 10.과 같이 리노베이션에 쓰일 주택 타일, 문, 손잡이, 벽난로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디자이너와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예로서 벽난로 선반은 건물 잔해로 만들고 세라믹 손잡이는 집에서 직접 구웠으며, 천은 목판 인쇄로 찍어내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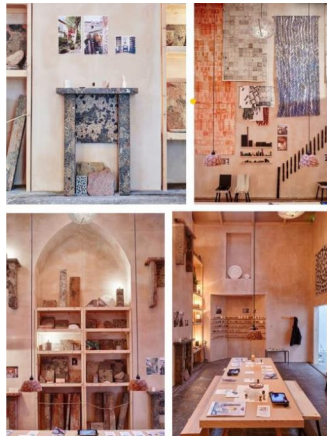


Fig. 10. Materials made in Granby Workshop[34]

어셈블이 운영하는 슈가하우스(Sugarhouse Studio)는 본격적인 사무공간이자 협력 작업장으로서 2012년에 스트랫포드(Stratford)에서 시작되었다. 런던 레거시 개발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개발 전 방치된 사탕공장을 위탁받았다. 특히, 뒷마당에 워크숍인 야드하우스(Yardhouse)를 8만 파운드의 저비용으로 지었다. 기존 철거된 창고의 1층 슬라브와 배수연결로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프레임과 클래딩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한 건식 및 탈착식으로 계획하여 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34]. 이에 따라 목수, 벽돌공, 페인트공의 고용 없이 Fig. 11.과 같이 D.I.Y.로 시공되었고 외벽도 다채색 콘크리트 타일로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부착하였다.



Fig. 11. The Construction Process of Yardhouse (<https://99percentinvisible.org/episode/instant-gramification>)

본 건물의 공간구조는 단순히 임대공간이 아닌 협력 작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우선, 중앙은 상부로 오픈된 공용공간이며 양측에 2-3층의 개별 스튜디오 공간이 배치되었다. 3.5m에서 4.5m 사이의 구조모듈이 임대할 수 있는 공간 기준이며 입주자가 직접 공간을 완성

하도록 하였다[36].

이후 2014년 슈가하우스는 버몬지(Bermondsey)로 이전하였다. 본 공간도 Fig. 12.와 같이 공용 작업장 및 회의실을 중심으로 개별 작업장을 가설 목재 칸막이벽으로 구



Fig. 12. Sugar House Plan in Bermondsey

성하여 협업과 개별 스몰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37]. 2012년부터 어린이 워크숍, 컨퍼런스, 전시·교육, 음악·영화화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셈블의 워크숍은 D.I.Y. 협력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다. 우선,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주민을 생산자로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이다. 두 번째는, 분야별 협업을 유도하는 워크숍이다. 공통적으로 D.I.Y. 공간구축 과정과 D.I.Y. 공유 작업장이 수반된다.

4.2 참여적 업사이클링 과정

어셈블은 어떻게 짓고(How we build) 사물들이 만들어지며(How things are made) 재료들이 결합되는지(How materials are assembled)에 집중함을 강조한다.[34] 재료와 사람의 단절을 연결할 방법을 지역과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38].

2013년 오티오 프로젝트(OTO Projects)는 대상지 건물 잔해를 활용한 예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후 10년 동안 카페 오티오(Cafe OTO)에게 위임된 땅에는 폐건물 잔해가 많았다. 실험·교육적 공원과 연습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 운영자,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였다[34]. 이에 따라 Fig. 13. 과 같이 폐건물 잔해를 넣은 포대로 벽을 쌓는 방식을 선택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와 함께 공간이 구축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결국, 60여명의 뮤지션과 오티오 멤버, 주민 등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37], 추후에도 프로그램 생산자와 관리자, 사용자로서 역할이 지속되었다.



Fig. 13. The Construction Process of OTO Project[37]

시네롤리움(Cineroleum)에서는 주민들의 재료 수집과 업사이클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클러켄웰가(Clerkenwell Road)의 버려진 주유소를 임시 영화관으로 전환한 2010년 사회실험 프로젝트였다. 아파트를 짓기 전 방치된 대치를 찾아 임시적 사용권을 얻은 후 지역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영화관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자체 진행 프로젝트였으므로 한정된 예산과 기간 등 조건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기관 참여가 필요했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거나 기부를 받아야 했다. 결국, 100명이 넘는 학교, 단체, 주민의 적극적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었다. 어셈블은 목공·제작 교육도 진행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D.I.Y.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관 의자는 Fig. 14.와 같이 비계발판 나무로, 로비는 포마이크로 마감한 학교 책상과 의자로 제작되었다[39]. 오디오리움은 기부 받은 지붕단열재를 바느질로 커튼으로 바꾸었다.



Fig. 14. The Construction Process of Cineroleum (<https://www.archdaily.com/777156/the-cineroleum-assemble>)

폴리 포 프라이어보(Folly For A Flyover)도 업사이클링 작업으로 공간을 구축한 사례이다. 런던 올림픽 경기장 주변(Hackney Wick) 개발 전에 지역에 관심과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어셈블이 기획·설계와 시공을 진행하였다. 용도는 영화행사 및 전시장이었다. 여기서도 주민들이 쉽게 공간을 구축할 재료와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기부 받은 폐·철도 침목을 벽돌과 같이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Fig. 15.과 같이 200명의 주민들이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40].



Fig. 15. The Construction Process of Folly For A Flyover[37]

이와 같이 어셈블은 재료 수집과 D.I.Y. 과정에서 참여 확대의 방식을 고안한다. 폐-재료 수집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손쉬운 업사이클링 작업을 위한 재료

가공 및 구축방식을 선택한다. 참여의 폭과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4.3 지속적 지역 비즈니스 모델 발굴

어셈블은 프로젝트 수행 외에도 슈가하우스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공간운영 목적을 “공동 작업과 협업이 가능한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가, 디자이너 및 제작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41]”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Table 5.와 같이 가구, 음악, 건축, 예술 등의 협업이 가능한 작가와 창업자들이 입주하였다. 임대료는 한 스튜디오 평균 15m² 당 400파운드 정도도 낮은 편이다. 대신, 협업을 통해 스몰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주민을 위한 오픈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5. Sugarhouse Tenants and Business field (<http://www.sugarhousestudios.co.uk>)

Category	Work field	Category	Work field
Assemble	Architecture, design and art	Katie Spragg,	Animation, illustration and installation art
Bramble and Mr Twigg	Bags and cycling accessories making/design	JackJames Furniture	Furniture making/design
Collective Matter	Clay art	JAMPS	Furniture making/design
Emma Leslie	Furniture making/design	Mauro Dell'Orco	Furniture making/design
Eva Masterman	Material art	Marianne Keating	Media art
Hayatsu Architects	Architecture	New School of Furniture Making	Furniture workshop
Hannah Thua	Fine art	Rob Szeliga	Sound design
HH.TH	Leather design	Sitraka Rakotoniaina	Music director
InHouse Records	Music	Studio Manolo Ltd	Furniture making/design
Sugarhouse Records	Music	Surman Weston	Architecture
Steve John Cook	Furniture making/design	Stinsensqueeze	Graphic design/publishing
Ying Chang	Product designer	Workshop East	Workshop

블랙홀스 워크숍(Balckhorse Workshop)에서는 운영의 지속성 위한 수익모델을 기획한 사례이다. 2014년에 월섬스토(Walthamstow)의 공공건물에 시민에게 공구와 작업장, 기술교육을 제공할 목적이었다. 어셈블은 컨셉과 비즈니스플랜, 주민참여 방식과 조직화 전략을

기획하였다. 본 워크숍은 '만들고 고치는 문화로서 D.I.Y.'를 촉발시켜 지역 공예와 제조 산업 역사를 재-인 지시키는 공간으로 제안하였다[34]. 특히,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에게 창업과 연계한 메이커 마켓을 주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 수익모델을 위해 Fig. 16.에서 보듯이 베이커리 카페와 브루어리(Brewery)를 운영하도록 기획하였다.



Fig. 16. The Product and Program of Blackhorse Workshop
(<https://archello.com/project/blackhorse-yard>)

그랜비 워크숍은 어셈블이 주민과 함께 지역 기반의 회사를 설립한 사례이다. 어셈블은 영국 전통방식 타일을 제조했던 주민을 발굴하고 디자이너와 협업한 제품을 생산할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지역청년들이 고용되어 타일을 생산하며, Fig. 17.의 윈터가든(Winter Garden)을 포함한 어셈블이 진행하는 리노베이션 현장에도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런던 지하철 공사자재로 납품하였고 어셈블의 타 지역 작업에도 활용하는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공 인력도 지역청년을 고용하는 등 지역 순환경제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있다.



Fig. 17. Winter Garden in Granby

이와 같이 어셈블은 단발성의 이벤트 공간과 활동을 지향하기보다 파생 프로그램들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협업 가능한 공간 구축 및 운영으로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을 모아 스몰비즈니스 및 지역 오픈 행사를 지원하며 수익모델 공간과 프로그램을

유도한다. 또한 직접 지역 자산기반의 회사를 설립하여 순환경제 모델을 실행하기도 한다. 단, 모든 방식에는 직접 작업하는 주체·과정·결과를 개입시킨다. 이는 'D.I.Y. Spirit'을 직접 실천하면서 전달 및 확산시키기 위한 실행방식이다.

4.4 소결

이와 같이 어셈블은 D.I.Y.를 통한 공간구축 및 이를 기반한 운영방식을 고수한다. 'Resourcefulness and D.I.Y. Spirit'을 지향하기 위해 참여를 확장하여 자생적 · 협력 정신을 구축하려 한다.

Table 6.에서 보듯이 D.I.Y.의 참여대상은 어셈블을 비롯해 주민과 공간 운영자·점유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가 주를 이루며 지역조직도 참여한다. 특히, 워크숍은 D.I.Y.로 협업 가능한 작업장이 된다. 워크숍은 주로 공간을 의미하나 작업현장에서도 협업적 구축 활동이 이루어진다. 공간인 경우 공동작업장을 중심에 배치하고, 예술가, 디자이너, 공예가 등 창작과 제작 관련 분야 주체들을 수용한다.

D.I.Y. 방식은 업사이클링 작업을 활용한다. 다수의 주체들을 참여시켜 능동적 이해관계자로 변환시키려는 전략이다. 재료 수집부터 시공까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재료의 가공 및 구축방식을 고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D.I.Y.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우선, 워크숍에서 D.I.Y. 협업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개별 스몰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D.I.Y.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수익모델을 기획한다. 최종적으로 D.I.Y. 기반 지역 자산 활용 회사를 설립하여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기도 한다.

결국, 어셈블의 D.I.Y. 기반 작업은 Fig. 18.에서 보듯이 크게 장소, 방식, 운영과 참여자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워크숍과 작업 대상지는 협업적 D.I.Y. 거점 '장소'가 된다. 이 곳들은 D.I.Y.로 구축되면서 재료 수집·가공·구축 과정에서 업사이클링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거점 장소에서는 지역에 파급되는 스몰비즈니스, 시민 개방 프로그램과 수익 프로그램 등이 D.I.Y. 기반 '방식'으로 생산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조직들은 적극 참여자와 능동적 이해관계자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어셈블이 자생적 태도와 정신으로서 'D.I.Y. Spirit'을 지역에 구축하는 과정이며 촉진자로서 조사·기획·교육·운영·설립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6. Implementation factors for 'DIY Spirit' in Assemble Works

Year	Name	Client	Implementation for 'DIY SPIRIT'							Business Model
			D.I.Y. Participants			Up-cycling Materials				
			Residents	Local group	ETC	(Recycled) Wood	Processed Waste	Self-Production	ETC	
2010	Cineroleum	Self-initiated			School group	School Chair & desk Scaffolding Board			Donated Insulation	Cafe & Bar
2011	Folly For A Flyover	Self-initiated				Railroad tie				Hosting program
2012-2014	Sugarhouse Studio Stratford	Self-initiated			Occupants					Rental & Cooperating
2012-2014	Yardhouse	Self-initiated, match-funded by London Legacy Development Cooperation			Occupants				Existed building base	Rental & Cooperating
2013	OTO Projects	Cafe OTO			Musician OTO Member		Sack			-
2014	Sugarhouse Studio Bermondsey	Self-initiated			Occupants					Rental & Cooperating
2014-	Granby Four Streets	Granby Four Streets Community Land Trust(CLT)								Rental
2014	Balckhorse Workshop	London Borough of Waltham Forest, Greater London Authority								Cafe, Brewery, Flea market
2015-2019	Granby Workshop	Self-initiated			Artist					Product Production
2016-	Winter Garden	Granby CLT			Local workers			Tile		Residency
	: In Workshop Space		: Field Workshop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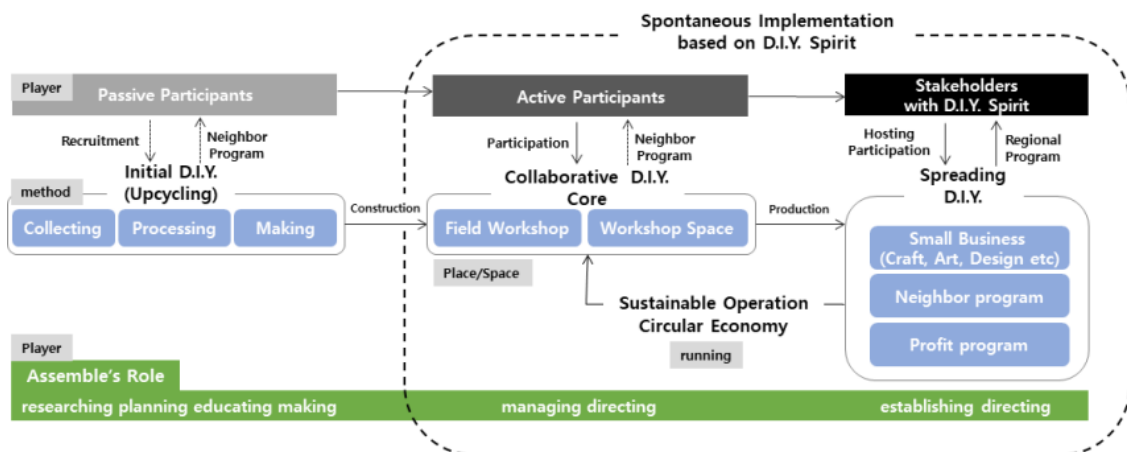


Fig. 18. The Process of 'D.I.Y. Spirit'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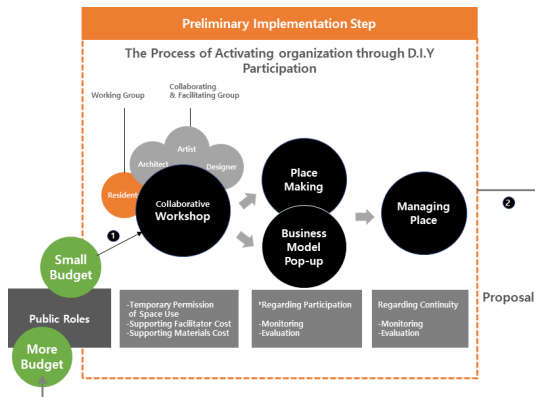


Fig. 19. The Basic Process of 'D.I.Y. Spirit' applied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

5. 결론

기존 지역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 개념과 방식은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한정하여 제도 규정 및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계가 있다. 사업 후 자생력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택티컬 어바니즘, 게릴라 어바니즘, 팝업 어바니즘, 사회실험 프로젝트에서 주민참여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운영자와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해결하는 D.I.Y. 과정 이행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어셈블은 'D.I.Y. Spirit'의 구축 및 실행과의 촉진자로서 장소 구축과 운영을 통해 참여자를 적극적 참여자와 능동적 이해관계자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한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참여자와 공간, 프로그램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방식에도 이런 'D.I.Y. Spirit' 이입 과정을 Fig. 19와 같이 수용하여 사업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류심사 후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적은 예산으로 유희지를 시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사전에 추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예산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D.I.Y.를 수행하는 워크숍 공간의 구축, 재료 제공, 촉진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서 D.I.Y. 협업이 가능할 건축, 예술, 디자인 영역 주체와 조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D.I.Y.로 구축된 공간에서는 일상적 교육과 사용을 지양하고 만들기과 D.I.Y. 기반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지

역과 공유·기여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타-사업과 활동인 집수리, 축제 및 행사, 지역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행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구축 및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여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D.I.Y. 참여를 통해 주민이 요구한 공간이 확장·성장하는 사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는 주민들의 협력과 직접 실행으로 'D.I.Y. Spirit'을 이입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모집을 통해 재생사업 거점공간의 운영조직을 선발하는, 단절된 조직화 과정이 아닌, 연속되고 확장되는 장소 구축과정이다. 재생사업 목표로서 지역 주체·공간·프로그램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본 제안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되어 현장에서 검토되고 보완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기준과 방식, 체계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일률적 사업체제로 진행되는 지역재생 사업방식의 대안으로서 'D.I.Y. Spirit' 적용형 재생사업 모델 제안이 필요하며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Headline Jeju, Stores supported by Youth mall project closed 4 out of 10, Headline Jeju, 2018 [cited 2018 Oct. 23], Available from: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66> (accessed Apr. 20, 2021)
- [2] D. W. Sohn, "Participatory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52, No.7, pp.24, July 2008.
- [3] H. O. Park, "A Study on the Urban Renaissance and Regional Renaissance in Japan", *Media and Performing Arts*, Vol.3, No.1 pp.1, Apr. 2008, Available from: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268415>
- [4] W. D. Kim, M. Y. Kim, J. W. Choi, "A Basic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Design Tool for Urban Regeneration",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Vol.28, No.1, pp.86-88, Oct. 20 2008.
- [5] N. Y. Lee, J. S. Ahn, "General Type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Promotion of Resident-Participation: Focusing on Garibong-dong, Guro-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Vol.20, No.1,

- pp.75, Dec. 2017
DOI : <http://dx.doi.org/10.21189/JKUGS.20.3.5>
- [6] Y. G. Kim, S. K. Cho, "An Application of Crowdsourcing to Exp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Smart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35, No.8, pp.48, Aug. 2019
DOI: https://doi.org/10.5659/JAIK_PD.2019.35.8.47
- [7] City of Seoul, Manual for Urban Regeneration Act, Technical Report, City of Seoul, South Korea, pp.3, Available from:
<http://ebook.seoul.go.kr/Viewer/XYFIH6ZXEGGJ>
- [8]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asic Guideline of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olicy Repor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outh Korea, pp.4-6
- [9] N. D.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Enterprises", *Briefing*,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Vol.117, pp.1-2, Mar. 2018, Available from:
<https://www.dsi.re.kr/board.es?mid=a10104000000&bid=0004&nPage=20>
- [10] Kim, Hang Zip,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tion Plan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Town Center Revitalization in Rural Areas, Research Repor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outh Korea, pp.111, Available from:
<http://oak.cni.re.kr/handle/2016.oak/4825>
- [11]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upport Project, Policy Report,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outh Korea, pp.520-521, Available from:
<https://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
- [12]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 2019 Guideline,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outh Korea, pp.1, Available from:
<https://www.raise.go.kr/raise/geoInfoSystem/bbsMainView.do>
- [13]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egional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 Service Task Guideline, Technical Repor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outh Korea, pp.2 Available from:
<https://www.ekr.or.kr/common/FileDown.do?atchId=385363&blbdId=26&tgrtNm=artc&tgrtId=435954>
- [14] Soon Sub Choi, Joon-Gul Oh, "Characteristics of Socio-Experimental Container Architecture for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177, pp.182, Jun.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76>
- [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for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s and Implementing Projects,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uth Korea, pp.2, pp.16, pp.25 Available from:
http://uri.seoul.go.kr/surc/archive/policyView.do?bb_s_seq=2832&bbs_master_seq=POLICY
- [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for Implementing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s in 2014,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p.1, South Korea, Available from: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745
- [17] Park, Da Ye, et al. The youth mall is in danger of mass closure. Government to reopen without a remedy, *Jungbu Daily*, 2021 [cited 2021 Mar. 25], Available fr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8779> (accessed May 1, 2021)
- [18] U. H. Jang, Sunchang County Council, Shin Jeong-eun, 20 billion won a year in public building management costs. There is a financial management problem-Five-Minute Remarks, *Gukje News*, 2020[Cited 2021 Sep.16], Available from: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948> (accessed Apr. 25, 2021)
- [19] Y. S. Hwang, et al.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cheon City's Urban Renewal New Deal", *IDI Urban Studies*, Vol.16, pp.200-205, Dec. 2019
DOI: <http://dx.doi.org/10.34165/urbanr.2019..16.185>
- [20] S. J. Seo, Z. S. Yoon, The Suggestions of Improvement Schemes for Urban Regeneration Act, Research Report, AURI, South Korea, pp.75-76, Available from:
https://www.auri.re.kr/gallery.es?mid=a10302000000&bid=0010&list_no=182&act=view
- [21] S. W. Han, A Plan to Revit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Efficient Urban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Research Report, ChungNam Institute, South Korea, pp.19-21, Available from: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11146&seq=1>
- [22] Frederick Wulz, "The Conception of Participation", *Design Studies*, Vol.7, No.3, pp153-157, 1986
DOI: [https://doi.org/10.1016/0142-694X\(86\)90052-9](https://doi.org/10.1016/0142-694X(86)90052-9)
- [23] J. H. Song, Tactical Urbanism and Parklet, Architect, 2017 [cited 2017 Nov.], Available from:
<http://kiramonthly.com/tactical-urbanism-and-parklet-kobe-parklet-in-sanomiya-kobe-city/?ckattempt=1> accessed May 17, 2021)
- [25] Kate Ortom-johnson, DIY Citizenship-DIY Citizenship, Critical Making, and Community, p.464, The MIT Press, 2014, pp.141-143
DOI: <https://doi.org/10.7551/mitpress/9568.001.0001>
- [26] Krzysztof Herman et al., "From Tactical Urbanism Action to Institutionalised Urban Planning and Educational Tool: The Evolution of Park(ing) Day", *LAND*, pp.20, Jul. 2020.
DOI: <https://doi.org/10.3390/land9070217>
- [27] John Brunton, Ground Control calling: the new Paris

- arts and food hub, The Guardian, 2018 [cited 2018 Ju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travel/2018/jun/13/gro-und-control-paris-arts-food-drink-theatre-hub> (accessed May 17, 2021)
- [28] Nitin Sawhney et al., "Civic Engagement through DIY Urbanism and Collective Networked Action",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30, No.3 pp.337-340, Jul. 2015
DOI: <https://doi.org/10.1080/02697459.2015.1054662>
- [29] Anthony Lieures, Comment des jeunes entrepreneurs et artistes trouvent refuge dans des friches industrielles, Le Parisien, 2021 [cited 2021 Mar.], Available from:
<https://www.leparisien.fr/seine-saint-denis-93/comm-ent-des-jeunes-entrepreneurs-et-artistes-trouvent-ref-uge-dans-des-friches-industrielles-16-03-2021-8428772.php> (accessed May 17, 2021)
- [30] Molli, A Visit to Les Grands Voisins: A Hospital Revisited, DISCOVER WALKS BLOG, 2019 [cited 2019 Jul.], Available from:
<https://www.discoverwalks.com/blog/paris/a-visit-to-les-grands-voisins-a-hospital-revisited> (accessed May 17, 2021)
- [31] ASSOCIATION LA GOUTTE VERTE, JARDIN MOBILE DU 2/4 RUE CAVÉ/25 RUE STEPHENSON 75018 PARIS, Technical Report, DOSSIER SEMAVIP, France, pp.17, Available from:
https://cavegouttedor.files.wordpress.com/2016/11/goutte-verte-constats-et-invitations_2-4-cave-25-step-henson.pdf
- [32] Reuben Duarte, DIY Urbanism and Top-Down Planning, Planetizen, 2016 [cited 2016 Feb.], Available from:
<https://www.planetizen.com/node/84500/diy-urbanism-and-top-down-planning> (accessed May 17, 2021)
- [33] Donovan Finn, "DIY urbanism: implications for cities", *Journal of Urbanism: International Research on Placemaking and Urban Sustainability*, Vol.7, No.4, pp.394-395, Mar. 2014
DOI: <https://doi.org/10.1080/17549175.2014.891149>
- [34] Angelika Fitz et al. ed, Assemble: How We Build, p.160, Park Books, 2018. pp.8, pp.46, pp.62, pp.84
- [35] J. H. Lee, Space for Voluntary Change-Interview with Fran Edgerley(Founder member of ASSEMBLE), arte[365], 2018 [cited 2018 Nov. 19], Available from:
<https://arte365.kr/?p=69619> (accessed May 17, 2021)
- [36] Archello, Yaedhouse, Archello, Available From:
<https://archello.com/project/yadhouse> (accessed May 17, 2021)
- [37] Assemble, Projects, Assemble, Available From:
<https://assemblestudio.co.uk/projects> accessed May 13, 2021)
- [38] D. I. Lee, [Group] Re-defined City-ASSEMBLE, A-nun DongNae, Available from:
<https://www.iknowhere.co.kr/magazine/30> (accessed May 17, 2021)
- [39] Esther Choi, Architecture Assemble, Artforum, 2015 [cited 2015 Nov.], Available from:
<https://www.artforum.com/print/201509/assemble-55524> (accessed May 17, 2021)
- [40] Create London, Our Project Archive-Folly for a Flyover, Create, 2011, Available from:
<https://createlondon.org/event/2011-create-art-award> (accessed May 17, 2021)
- [41] Assemble, Assemble Work Space, Available from:
<https://assemblestudio.co.uk/workspace/sugarhouse-studios> (accessed May 17, 2021)

최 순 섭(Soon-Sub Choi)

[중심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13년 9월 ~ 2014년 8월 : UBC Visiting Scholar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기획, 건축계획, 도시재생, 교통건축, 역세권, 축소도시